Club Church News

키괴 전교환론

1. Awana 안플 데이

경기 용인에 위치한 향상교회에서 Awana 와플 데이 모임을 갖았습니다. 담당전도사님을 비롯하여 부장집사님과 여러 선생님들께서 와플을 몇 백 개는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푹푹 찌는 찜통 같은 더위를 경험하셨다고 하네요. 어떤 선생님은 찜질방이 따로 없다고 하실 정도로요. ^^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향상교회 어와나 친구들은 또 하나의 멋진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상교회에서는 떡볶이 데이와함께 와플 데이를 고정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한 번 도전해 보세요.

1. Awana Waffle Day

We gathered for the Awana Waffle Day at Hyangsang church in Yongin. The pastor and the teachers that are in charge of the gathering made several hundred waffles. They say they experienced the baking heat for the children. Some teachers even said that it was just like one of the Korean dry saunas. ^^ The Awana friends of Hyangsang church were able to have another amazing memory because of the effort and hard work of the teachers. Thank you. They say Hyangsang church is planning to have Dukbokgi Day and Waffle Day periodically. Why don't all of you also try this event in your churches?



3.서울지역교회 어와나 오픈교육

지난 6월과 7월에 서울지역의 동성교회, 광림교회와 삼 창교회에서 어와나 오픈을 위한 교사 교육을 실시 하였 습니다. 하반기 오픈을 준비하며 실시된 교사 교육은 참 여한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은혜로운 시간으로 진행 되었 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서울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많은 동역자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지역 연합 게임즈 연습

경기인천지역 게임즈 본 행사를 앞두고 지역별로 게임 즈 연습 및 예행연습 시간을 갖았습니다. 6월 11일에는 성남지역모임이 할렐루야교회에서, 6월 19일에는 수원지역모임이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일산지역모임이 일산동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특별히 6월 25일 게임즈 본 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본 대회를 앞두고 게임즈 운영과 규칙 등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역 연합 게임즈연습을 하자라는 교회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통한 지역별 어와나 교회 모임의 활성화를 기대하여 봅니다.

2. Local Union Games Practice

Before the GyeongGi & Incheon Awana Games opened, each church practiced their games and had a time of rehearsal by cities. The practice games were held on June 11th in Halleluiah church for the Sungnam district gathering, on June 19th in Soowon Jungang church for the Suwon district gathering, and in Ilsan Dongan church for the Ilsan district gathering. Especially, there were many churches that were planning to participate the Awana Games on June 25th for the first time that came to the gathering. They were able to earn a lot of help about the game rules, how the games will be ran, and so forth. There were requests about having the local union games practice periodically and we are expecting that these gatherings will start to be activated more.



3. Awana B.T of Seoul Churches

There was an B.T for teachers for Awana Open Last June and July in Dongsung church, Kwangsung church, and Samchang church in Seoul. The education for the Awana Open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as proceeded gracefully through the passion of the teachers that participated. We ask all of you, our co-workers to pray for the churches in Seoul that will be newly starting this program.







